1천년 동안 모른 채 함께한 佛사리

범어사, 대웅전영산회상도사리친견 · 이운법회

영산회상도 배면서 사리 4과 발견
대웅전과 성보박물관에 사리 봉안
사리 이운의례, 사리친견 특별전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주지 경선)가 5월 18일 대웅전과 성보박물관 일대에서 '대웅전 영산회상도 사리친견 및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는 지난 2021년 가을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를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하는 과정에 불화 배면(背面)에서 봉안된 사리 4과를 발견했다. 범어사는 불자들의 신심 고취와 사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사리친견법회 및 사리이운의식을 봉행했다. 사리 4과 가운데 2과는 범어사 대웅전에서 백중 지장기도 기간(5월 19일~8월 15일) 동안 친견할 수 있으며, 나머지 2과는 성보박물관 중정에서 상시 전시한다.

법회에서 주지 경선 스님은 "천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대웅전에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을 몰랐다. 그동안 대웅전에서 기도하던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신과 함께해온 것이다"며 "이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도 대웅전에서 기도할 때 신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신이 늘 함께한다는 심정으로 기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리이운의식은 전통불교의식에 의거 인로왕번과 사명기가 앞서고 취타대가 행렬 시작을 장엄했다. 오방번에 이어 도량을 맑히는 향로와 화려한 꽃을 뿌리는 산화의식이 진행됐다. 주지 스님과 내빈들의 행렬 바로 뒤에는 사리를 봉안한 붉은 금어연이 뒤를 이었고 신도들은 오색 끈을 잡고 기도하며 행렬을 뒤따랐다. 특히, 범어사 금어연은 2013년 조선시대 전통 연(輦) 제작 방식에 따라 21명의 장인들이 제작했으며, 지난 2019년 20만 명이 운집한 불교문화대축제 건봉사 사리 이운서 사용된 바 있다.

성보박물관에 도착한 사리는 중정에 마련된 안치대에 봉안됐으며 대중들의 육법공양 후 친견이 이어졌다. 앞으로 성보박물관에서는 사리와 함께 대웅전 영산회상도를 함께 친견할 수 있다.



범어사가 5월 18일 '대웅전 영산회상도 사리친견 및 이운 법회'를 대웅전과 성보박물관 일대에서 봉행했다.

범어사 영산회상도는 1882년 수룡당 기전 스님이 주도해 17명의 화승들과 함께 제작했다. 기전 스님의 화맥은 완호 낙현, 권정두로 이어져 현재 권정두의 자제이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인 권영관 불화장이 계승하고 있다. 권영관 불화장은 현재 범어사 대웅전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와 '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 '신중도(神衆圖)' 모사 제작을 진행 중이다. 범어사는 백중 지장기도 회향일인 8월 15일 대웅전에서 봉안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범어사는 5월 18일 백중지장기도 및 선지식 초청법회를 경내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주지 경선 스님의 입재법문으로 시작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릴레이 법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초청법회에는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 前 범어사 승가대학장 용학 스님,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계룡산 원오사 주지 원오 스님, 세존사 회주 장산 스님, 전 조계사 주지 현근 스님, 범어사 율원장 원창 스님, 범어사 승가대학장 정한 스님, 운수사 주지 범일 스님, 동화사 금당선원 유나 지환 스님이 차례로 법문한다. 8월 15일 회향법회에는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이 법문할 예정이다.

홍법사, 나무심기로 국제적 나눔 실천

'나눔' 되새기고, 지구촌 미래 생각하는 시간

홍법사(주지 심산)가 5월 18일 경내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행사는 제9회 국제 기부의 날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구촌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세계 평화와 교류를 위해 ㈜에스앤파낙스로부터 기부 받은 황칠나무에 신도들이 직접 물을 주는 것으로 진행됐다.

나무심기에는 주지 심산 스님을 비롯해 신도들과 인도 키트(KITT) 대학 학생들이 동참했으며, 인도 미스리틀 인디아 우승자 드위베디 수반기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했다.

심산 스님은 "5월 17일은 '국제 기부의 날'이 9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어왔다"며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고 서로를 연결하고 지지할 수 있는 무한한 방법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왔다. 앞으로도 나눔과 서로를 위한 지지는 이어질 것이다"고 의미를 전했다.

홍법사는 몽골과 인도에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며 마스크 24만 장과 21만 장을 각각 전달한 바 있다. 몽골정부는 지난 5월 8일 심산 스님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홍법사는 몽골 우브르항가이 아르와이헤르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지닌 몽골 사찰 간단사의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매년 사찰과 지역민을 위한 축제 '도전 골든벨' 행사의 개최를 후원하고 행사의 우승자와 지도 교사에게 한국전통문화체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체험을 위해 홍법사는 사업비 전액을 후원해 인도와 몽골 등 국제민간교류의 폭을 확장했으며, 2019년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서쪽 420km 떨어진 황무지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몽골 사막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석전 스님, 미술대전 서울시장상 수상

전시 5월 17~28일,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석전 스님〈사진〉이 제4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인화 부문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다.

석전 스님은 사군자 가운데 묵죽작품(대나무)을 미술대전에 출품해 수상했으며, 수상 작품 전시도 개최된다.

전시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는 5월 17일부터 19일, 2부는 5월 21일부터 24일, 3부는 5월 26일부터 28일이다. 전시 장소는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가능하다. 입장료는 무료.

석전 스님은 종고 스님을 은사로 19교구 화엄사로 출가해 2006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부산미술대전 대상과 부경서도대전 우수상, 국전 입상 등 다수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복성산업개발, 나눔과 영산재 봉행

모전中 등 학생 5명에 장학금
독거 어르신 등에 쌀 3000kg
'무사고 공사 기원' 영산 대재

㈜복성산업개발(회장 박금태)이 5월 16일 부산 정관 효성힐린턴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장학금 및 백미 전달과 무사고 공사를 위한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복성산업개발은 불자기업으로 아파트 건설공사 시작 전에 지역의 안녕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 노동자의 안전을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해왔다. 아울러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인재양성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현장 노동자 및 지역민에게 백미를 전달하는 자비나눔으로 사회 환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은 정관읍에서 추천하는 모전중학교 2명, 중앙중학교 1명, 신정고등학교 2명 등 5명의 학생에게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총 5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학생을 대신해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장학



증서를 전달했다. 이어진 백미 전달식에서는 김종천 정관읍장에게 정관지역 독거어르신과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백미 3000kg을 전달했다. 이어진 영산재는 마이산 탑사 영산작법보존회가 주관했으며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무사고 공사를 기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박금태 복성산업개발 회장, 김종천 정관읍장, 김승하 대표이사, 전문순 부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진성 스님은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다. 노동자는 산업의 원동력이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 학생들을 지원하고 노동자가 행복해야 한다"며 "공사에 앞서 진행된 아름다운 나눔 행사를 함께 주관할 수 있어 기쁘며, 나눔 후원에 앞장서는 회장님의 자비심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김종천 정관읍장은 "정관읍장으로 부임 후 살펴보니 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46%에 이르고 있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마이산 탑사 주지이신 진성 스님과 박금태 회장님의 나눔이 너무나 귀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학생들과 독거어르신들에게 장학금과 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순 복성산업개발 부회장은 "복성산업개발은 토목과 주택 관련 건설을 하는 기업이다. 그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무엇보다 사회 환원을 실천해왔다"며 "12년 동안 나눔을 위해 30여 억을 환원했고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 초등학생을 위한 자전거 지원, 지역 정수시설 등 다채로운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발전과 더불어 나눔을 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명불원 · 부산밥퍼나눔공동체 MOU

매달 백미 20kg 40포 이상 후원 약정

동명불원(이사장 김경조)이 5월 18일 동명불원내 교육관에서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이하 밥퍼공동체)와 쌀 공양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동명불원은 협약식을 통해 매달 백미 20kg 40포 이상을 밥퍼공동체에 후원할 것을 약정했다.

협약식에는 김경조 동명불원 이사장, 성재곤 신도회장, 이원옥 신도회부회장, 이상수 신도회부회장, 손규호 법퍼공동체 이사장, 최광성 밥퍼공동체 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경조 이사장은 "밥퍼공동체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으나 쌀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게 됐다"며 "신도님들께서 올리는 공양미를 나눔 봉사 단체에 보시하는 것이 공양의 참뜻을 실천하는 길이며 공양 올린 분들에게도 뜻깊게 다가올 것"이라며 후원 의미를 전했다.

손규호 이사장은 "20여 년 동안 많은 분들과 인연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양곡을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곳은 동명불원이 처음"이라며 "마음과 힘을 보태주는 그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봉사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동명불원은 5월18일 동명불원내 교육관에서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쌀 공양물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동명불원은 관내복지회관,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탈북민 단체 등에 급식후원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소외가구 40세대를 방문해 도시락 및 쌀을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